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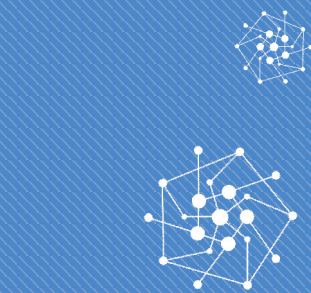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과 나집 총리의 정치적 입지

Benny Teh Cheng Gua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i Sains Malaysia



나집(Najib) 말레이시아 총리는 1MDB 스캔들로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스캔들이 알려진 이후 말레이시아의 시민사회와 정계는 총리를 규탄하였으며, 싱가포르, 미국 등은 자체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위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과 나집 총리의 정치적 입지라는 주제로 Universiti Sains Malaysia의 Benny The Cheng Guan Associate Professor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Q1.

1MDB의 스캔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1MDB의 설립 배경, 비자금 조성 수단과 규모, 재산 압류 현황 등)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는 2009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취임과 함께 설립된 국영 개발 계획 회사다. 해당 공사의 설립에는 국제적으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서 말레이시아가 2020년을 즈음하여 경제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정부의 야심 찬 비전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1MDB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1MDB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도 결산 보고된 4억 2,500만 링깃(약 1조 1269억 원) 규모의 순이익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뜨거운 이슈는 나집 라작 총리가 연루된 횡령 스캔들이다. 당시 수석자문위원을 지내고 있었던 나집 라작 총리의 개인 계좌로 1MDB 펀드에서 무려 26억 링깃(약 6,87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송금되었다는 부패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금액이 1MDB 펀드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검찰총장도 나집 라작 총리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 가문에서 들어온 개인 차원의 기부금이며, 6억 2,000만 달러(약 7,220억 원)가 기부자에게 반환되었다고만 밝히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나집 라작 총리의 무혐의를 선언했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사법당국이 자체적으로 1MDB스캔들 수사에 나섰다. 싱가포르는 한 스위스계 상업은행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2개소의 다른 은행에도 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미국 법무부도 올해 7월 1MDB 펀드기금 유용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민간인의 자산몰수를 청구했다.

Q2.

1MDB 재산 압류가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미국 내에서 1MDB 자산압류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자산몰수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1MDB 스캔들이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그 여파로 말레이시아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가 소장을 내기 전에도 1MDB가 기록한 막대한 부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고 나집 라작 총리가 연루된 펀드기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링깃 화의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외국인 펀드투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투자신용도 하락으로 주식시장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물론 에너지 가격과 유가 약세라는 대외경제적 악재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1MDB 스캔들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스캔들의 여파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미 법무부의 1MDB자산몰수 소송결정이 미국의 대(對) 말레이시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기 부양과 국가 부채액 경감을 위한 활로를 열기 위해 중국에 접근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공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는 야당과 반부패 시민사회단체, 마하티르 모함마드 전 총리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자산몰수청구 이슈를 나집 라작 총리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써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위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 1MDB 스캔들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인 UMNO당 내부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탈당한 중견급 정치인사들이 〈말레이시아민족연합당〉을 결성해 집권 여당의 독주에 도전장을 내밀고 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유도하고 있다.

Q3.

1MDB 스캔들에 대한 나
집 총리의 입장은 무엇인
가?

현재 나집 라작 총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자 정부 붕괴를 노리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국부에 손을 댄 도둑이 아니며 국민과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나집 라작 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1MDB 스캔들 보도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검찰총장을 경질하고 개각 단행을 통해 무흐이딘 야신 부총리를 축출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의 소송 결정 소식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집 라작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미국 측이 원하는 모든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Q4.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

필자는 국영 기업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금액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미 처음부터 나집 라작 총리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금액의 공금이 총리 개인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를 사이버 공간 위에 표출했다. 스캔들을 다룬 외신보도들이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리트윗되고 심지어는 블로그에도 올랐다. 정부가 일부 외신 사이트 접속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이것으로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 스캔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사태의 전개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해외 거주 말레이시아인들도 함께 분노했다. 말레이시아가 그동안 쌓아온 좋은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실은 이와 같은 규모의 부패 스캔들이 폭로된 것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처음으로 정치지도자가 대형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장외로 나와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까지 합세해 ‘시민의 선언’을 발표하는 등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는 서명운동 사이트가 개설되어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총리 퇴진을 요구했다. 2015년에는 반부패촉구 시위행진이 조직되어 이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장내에서도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 법무부의 자산 압류 소송 뉴스가 나오자 시민들은 다시 11월 19일 자로 또 다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Q5.

나집 총리는 새로운 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새 보안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이 2016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취지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출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테러리즘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구 국가들의 목소리와 일견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주의가 강화되고 급진 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가 IS와 연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이들을 방치할 경우 안보상의 위험이 높아져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IS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야기하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테러 역량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시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이 터졌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위원회가 총리 지휘 하에 최장 6개월간 국내 어느 지역이라도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수색 및 구류가 가능하다.

Q6.

보안법이 발효되고 말레이시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나?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군경을 포함한 어떠한 정부 기관이라도 지휘통솔 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게 된다. 군경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인을 수색하고 구속 및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보안구역 내에 있는 특정 건물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작전 지휘관은 계엄령을 선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민간인을 강제이동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위원회가 어느 한 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할 시 해당 지역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군 장교가 국가안보위원의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둘째, 테러 공격에 일차적으로 신속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군경 및 해양경찰청에서 선발된 17명의 장교와 170명의 일반병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특수작전군이 창설되었다.

Q7.

이번 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새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리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집 라작 총리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처럼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 역시 나집 라작 총리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정치적 반대파를 견제하고 나아가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나집 라작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보다는 위와 같은 속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믿고 있다. 법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안보위원회 소관의 모든 사안들이 비밀리에 처리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새 국가보안법이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헌법과 충돌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헌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오직 국왕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왕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정부는 보안구역설정이 국가비상사태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 국가보안법이 군경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영장 없이 민간인을 수색 및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상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Q8.

이번 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필자는 국가보안법 입법의 주목적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발흥을 견제하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는 데 있다면 말레이시아 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이나 사업체 및 기간 시설이 심각한 위협 하에 놓여있다고 판단될 시 당국이 해당 지역을 보안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안구역의 정의가 무엇이며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이 보안구역 내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연방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점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식인 및 일반 대중까지도 모두 국가보안법 입법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각계의 모든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의회를 거쳐 법제화되기 전에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이미 법제화된 상황에서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다른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으면 한다. 군이 경찰의 소관인 국내 치안 문제에 개입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치안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민간의 군에 대한 우위라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지 일이 없도록 군의 국내 치안 문제 개입과 결부된 문제에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Q9.

보안법 발효가 현재 나집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국가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나집 라작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MDB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야당의 퇴진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서비스세(GST) 도입과 같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운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지만, 나집 라작 총리는 국내치안 및 안보유지 문제에 관해서는 전보다 더 강력해진 사법권을 손아귀에 넣었다.

확대된 사법권 행사를 통해 국내 안보 문제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쥔 나집 라작 총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경과 유관 국가 기관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고 시가 행진을 봉쇄할 수 있다. 집회시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합법적 시위라 할지라도 국가안보위원회가 이를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시위구역을 안보구역으로 설정해 시가집회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로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본래의 취지대로 테러 위협 제거의 수단으로만 적용할 것인지 또 다른 목적을 위해 확대 적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10.

향후 나집 총리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가?

나집 라작 총리는 머리 위를 여전히 드리우고 있는 먹구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1MDB 자산몰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 이것이 만약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위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1월 19일로 예정된 집회의 진행 상황까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위의 영향으로 어떠한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한다.

나집 라작 총리로서는 운신 폭이 과거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 경기가 활력을 잃었고, 링깃 화 약세는 여전하다. GDP 대비 국가부채는 수년 간 계속 증가하여 현재 55% 수준에 이르렀다. 저유가로 인해 원유 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 작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한 소비세는 재정 적자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연료, 설탕, 식용유, 전기 등에 지원하던 보조금 삭감을 발표해 빈곤층과 중산층의 분노를 사고 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나집 라작 총리가 그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표된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현금보조금 지급(BR1M),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공 등 ‘선심성’ 유인책들이 눈에 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집 라작 총리로서는 경기가 불황으로 빠져들지 않고, 실업률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 무역을 늘리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따라서 나집 라작 총리의 최근 방중이 신규 투자자 모색,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나집 라작 총리는 공공 부채 수준을 동결하고, 재정 적자를 규모를 최대한 낮추는 한편 공금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렵다면, 1MDB 스캔들의 태풍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18년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물가에 고통받는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할 것이다.